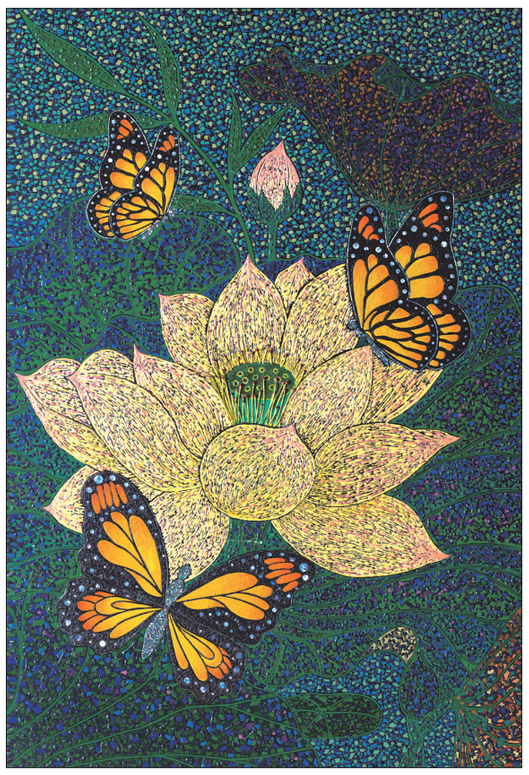
우리 민화의 새로운 모색 '옻칠민화'

제7회 옻밭아카데미 회원전
통도사성보박물관 12월 18일까지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 옻칠 기법 계승한
옻밭아카데미 회원 18명 30여 점 선보여
전통 민화에 옻칠기법 더해 새 장르 열어
옻물감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색감 개발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강필순 作, 몽중연.


박혜희 作, 고집멸도.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송천)은 12월 3일부터 18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제7회 옻밭아카데미 회원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통도사 서운암 옻밭아카데미 회원 18명이 옻칠물감으로 그린 민화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옻밭아카데미의 옻칠민화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옻칠기법을 계승하여 그린 그림이다.

민화는 정통회화의 조류를 모방하여 생활공간의 장식 등을 위해, 또는 민속적인 관습에 따라 제작된 실용화를 말한다. 조선 후기에 서민층에서 유행했다. 대부분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습 등의 항상성에 바탕을 두고 발전했기 때문에 창의성보다는 형식화된 유형에 따라 인습적으로 계승됐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민화는 민중이 그린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민화가 자유분방하고 격외적인 그림으로 대변되는 것은 외래문화의 영향을 덜 받고 민중이 그렸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이런 민화의 특성을 살리는 데 옻칠 기법을 더함으로써 달라진 시대에 부합하는 미술 장르를 열어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소재 면에서도 책가도 등 전통의 민화를 떠올리게 하는 그림이 있는가하면 연꽃을 소재로 한 현대적인 느낌의 그림도 있다. 선조들의 민화가 그 시대를 그렸듯 옻빛아카데미 역시 이 시대에서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색감에 있어서도 옻물감의 특성으로 인한 새로움과 시대상이 반영된 색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단청의 느낌을 품고 있지만 새로운 도형과 어우러진 또 따른 색감의 단청이 그렇다. 조선시대에서는 실현할 수 없었던 이 시대의 색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모색과 성과가 이번 전시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옻밭아카데미는 방수 · 방부 · 방충 등 옻칠 특유의 미학적 특성을 공부하면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성파 스님과 함께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옻칠민화를 그리는 작업이 전통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최상의 수행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옻칠민화 작업에 정진하고 있다. 또한 옻으로 민화를 그리는 과정에서 옻칠 목판 작업, 옻칠 채색화 작업, 나전칠예 작업 등이 수반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수행이고 결실을 맺는 매회 전시가 삶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작업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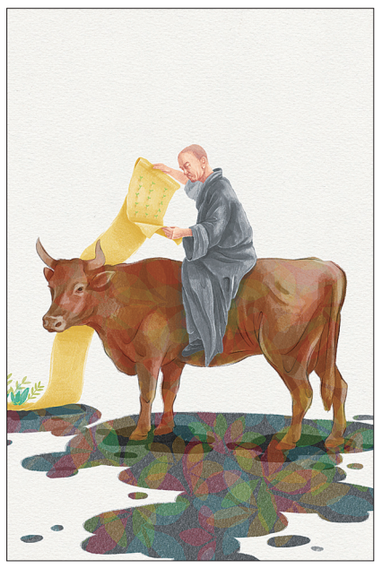
성파 스님은 "한국 미술은 고대에 불교미술과 결합하여 고려시대까지 찬란한 꽃을 피워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불화를 그리던 화원들이 전통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게 그린 그림이 오늘날의 민화"라고 설명했다.

통도사에는 명부전, 해장보각, 용화전, 응진전 등의 전각에 많은 민화가 그려져 있는데, 소박하고 파격적인 형식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민중의 염원이 갖가지 상상과 은유로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성파 스님은 이번 '제7회 옻밭아카데미 회원전' 을 맞아 '화심수성花心水性' 이란 휘호를 내렸다고 한다.

이현주 경상남도 문화재위원은 "이번 전시는 한국화의 많은 장르를 망라하여, 화조, 인물, 산수, 기명절지, 불화, 단청, 십장생, 문자도, 책가도, 운룡도 등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어 옻칠과 민화의 영역이 경계 없이 무한함을 알려주고 있다"면서 "해를 갈무리하는 즈음에 옻밭아카데미 회원의 노고가 우리 문화의 창달에 또 하나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파 스님은 10여 년 전에 칠화를 시작했다. 우리 전통 산수화와 옻칠 그림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중국 대가들의 작업실을 오가며 오늘날의 옻칠민화를 완성했다. 성파 스님은 서운암에서 한국적 미술재료인 옻액을 활용해 칠화 작업을 하고 있다. 옻에 상처를 내면 흘러나오는 '옻액' 에 석채, 흑연 등 다양한 재료를 섞어 직접 옻물감을 만들어낸다. 성파 스님에 의하면 칠화는 내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화는 여러 번의 덧칠을 하고 마지막에 칠하는 색을 보여주지만 옻칠화는 덧칠한 부분을 깎아내 속을 보여준다. 표면을 버리고 이면을 드러내는 기법은 옻물감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그런 옻물감은 화려하면서도 중후한 맛과 멋을 내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색감이 생생히 살아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성파 스님은 검은 색으로 알려진 옻칠의 일반적인 개념을 깨고 빛깔의 스펙트럼을 무한 확장시켰다. 이와 더불어 한국화의 일부로만 알려져 있던 민화를 우리 회화의 중심축으로 옮겼다. 특히 전통 그림의 재료가 먹과 석채 · 분채라는 틀을 깨고 옻칠민화를 한국화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옻칠의 시간성과 상반되는 민화의 속도감 및 쾌활함이 하나의 화면 속에서 응축된 완결성을 이룰 수 있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055)384-0010.

고려가 그린 원효와 오늘날이 그린 원효


금강삼매경소를 짓는 원효.

삼성현역사문화관 특별전 '고려가 그린 원효'

12월 6일부터 2023년 7월 30일까지
고려 기록 현대적 해석한 현대미술

"우리가 알고 있는 '원효' 는 어떤 모습일까"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후대인의 평가는 제각각이다. 어떤 인물은 혹독한 악평에 시달리다가 재조명을 받기도 하고, 어느 순간 잊히기도 한다.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관은 2022년 특별기획전으로 고려시대의 역사 기록물과 이를 현대미술 작품으로 재해석한 '고려가 그린 원효' 를 개최한다. 12월 6일부터 2023년 7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원효의 발자취를 좇았던 고려시대 사람들의 기록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그린 그림들을 선보인다. 현대미술 작가들과의 콜라보 작업을 통해 유물과 미술작품의 조화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 문인들이 남긴 〈대각국사문집〉, 〈삼국유사〉 그리고 요나라의 불교주석서인 〈석마하연론통현초〉에 등장하는 원효를 현대미술 작가들이 재해석한 작품들이다.

'화쟁' 으로 대변되는 원효 스님이 살았던 신라시대 사람들은 원효를 존경하고 빼어난 인물로 칭송했다. 고려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대각국사 의천과 보각국사 일연은 원효의 사상과 철학을 재음미했다. 의천은 송나라 및 요나라에 원효의 저작을 서신과 함께 보내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앞장섰다. 한편 고려 후기의 승려였던 일연은 〈삼국유사〉를 지으면서 '원효불기' 즉 원효는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고 이해했다. 일연이 그린 원효의 모습은 백성과 함께 거침없는 무애춤을 추고, 소의 두 뿔 사이에서 〈금강삼매경소〉를 짓는 등 완전한 무애인이었다. 686년 3월 30일 원효 스님이 입적한 이후 그의 방대한 저작들은 나날이 주목을 받았고, 그 명성은 다시금 동아시아로 퍼져나갔다. 신라시대가 끝이 나고 고려 왕조가 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때에도 원효에 대한 존승은 달라지지 않았다. '보살' 과 '성사' 의 칭호가 그를 따라다녔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원효대사는 신라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오랜 시간 변함없는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로 시대를 뛰어넘는 유연한 사상과 철학을 가진 고승이었다. 이번 전시는 고려시대 사람들이 그린 원효대사의 모습이 오늘날 경산에서 삼성현(三聖賢, 원효 · 설총 · 일연)으로 존경하고 있는 모습과 얼마나 닮아있는지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원효 스님의 입적으로부터 500여 년이 지난 오늘,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깨달음을 추앙했던 고려의 찬미와 헌사를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의 화가들이 참신한 시각과 재조명을 통해 완성한 그림과 삼성현역사문화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전시이다. 고려가 그린 원효가 오늘날의 대중이 그리고 있는 모습과 얼마나 닮아있는지를 느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현역사문화관은 2015년 4월 경산시에 역사적 연원을 둔 원효 · 설총 · 일연[삼성현(三聖賢)]의 업적과 의의, 사상적 우수성 등을 조사 · 연구 · 교육하기 위해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삼성현공원로에 위치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내에 건립된 박물관이다. 개관 이래 특별기획전시와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학술총서를 간행했으며, 초등부와 중등부로 구분하여 '학교 밖 역사이야기' 와 '삼성현 어린이 체험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꿈이 이루어지는 도량 함안 마애사

천년의 물 흐름 속 영험한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청룡대불

지성으로 기도드리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는 기도도량입니다

미리 부처님 친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어 발원하는 모든 일들
원만성취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완공 예정
2024년 1월 1일 갑진년(청룡의 해) 새해 점안법회 예정
055-585-5114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마 애 사


함안 마애사 청룡대불